

광양시, 지속가능 농업 실현 '앞장'

다층 교육 현장형 전문 인력 양성

신기술 보급·과학영농관 활성화

친환경농업대학 인재 양성 자리매김

광양시가 '돌아오는 농촌, 청년이 정착하는 농촌' 실현을 목표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회복과 생명산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농촌지도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가능 농업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17일 광양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기초영농기술·현장실습, 친환경농업대학 등 다층적 교육을 통해 현장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시범·실증을 통한 신기술 보급, 소득작목 육성, 과학영농관 활성화, 농기계 임대·안전교육, 시민참여 꽃길 조성 등을 병행해 안전 농산

물 생산 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연초 실시되며, 최신 농업정책과 동향 안내,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기초영농기술교육은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이다. 2015년 1기 개설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총 11기, 375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친환경농업대학은 친환경 농업 실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작물 재배 기술, 마케팅, 농산물 가공, 경영 등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2005년 개설 이후 현재까지 총 22회 운영된 친환경농업대학은 1천24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지



지난 5월 진행된 2025년 제11기 기초영농기술교육 귀농·귀촌반 현장체험 모습. <광양시 제공>

역농업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인 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를 대상으로, 문화적 욕구 충족과 농촌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을 위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농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시설채소연구회 과제

육 ▲스마트팜 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전문역량 향상에 힘쓰고 있다.

광양시과학영농관은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와 안전 먹거리 생산을 목표로, 작물 생육 증진부터 토양관리, 농산물 안전 분석까지 농업인에게 전문적인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과 농업기계 현장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100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관리 부실로 사용이 어려운 농업기계를 수리·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의 광양시 기술보급과정은 "다층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으로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영농 기반 강화와 시민 참여 사업을 통해 지역 농촌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보성군, 숙원사업 도시가스 공급된다

오늘부터 성암해그린아파트 첫 수혜

1천844세대...연간 4억 연료비 절감

보성군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시가스 공급이 본격화 된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18일부터 보성읍을 시작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첫 공급 대상은 보성읍 원봉리 소재 성암해그린아파트로, 전남도시가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군은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보성읍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되면, 보성읍 1천844세대가 연간 약 4억원, 세대당 평균 2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등유·LPG를 생활 연료로 사용하던

주민들은 난방비와 취사 연료비 부담이 크게 줄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20년부터 보성군-한국가스공사-전남도도시가스㈜가 공동 추진해 온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의 ▲장흥-보성-보성-별교 구간 주배관 공사와 보성군-전남도 도시가스㈜의 보성읍 소매배관 공사로 구분해 추진되고 있다.

주배관 공사는 장흥-보성(26.7km), 보성-별교(37.7km) 구간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 및 공급관리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천644억원이 투입된다. 장흥-보성 구간은 지난 7월 공사가 완료됐으며, 보성-별교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성읍 소매배관 공사는 2024년 8월 보성군과 전남도시가스㈜간 도시가스 공급 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공급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50억원이 투입되며, 1차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년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최초 공급 지역은 보성공급소-성암해그린-보성보훈회관 일원으로, 1차년도 소매배관 구간에 해당한다. 성암해그린아파트의 인입공사 완료에 맞춰 도시가스 최초 공급이 시작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며 "전남도도시가스와 적극 협력해 보성읍 내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순천시는 최근 정원위케이션에서 청림실천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 청림문화 확산 민·관 '맞손'

순천시 민·관이 청림문화 확산과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정원위케이션에서 시민과 민·관이 함께하는 청림실천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직능단체, 전문단체,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20개 단체의 단장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림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서약하며 청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청림, 함께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청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간담회에서 수립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부패취약분야 개선 시책에 반영하고, 청림실

천협의체와 함께 청림순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청림 실천을 행정 내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과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관규 시장은 "청림은 행정의 기본이며,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민과 함께 마련한 개선과제를 성실히 이행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 제2회 추경 208억 증액 편성

1차비 3.74% ↑ 5천784억 규모

담양군은 최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천576억원보다 3.7% 증가한 5천784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5억원(3.7%), 특별회계는 3억원(3.8%)이 각각 증액됐다.

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특히 부서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통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등에 대한 군비를 감액 후 시급하고 필수적인 현안 사업 등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사업 등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2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3억원, 2026-2030년 담양군 군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9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등 환경

분야에 8억원,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등 사회복지 분야에 4억원, 예비비에 12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분야에 15억원도 증액됐다.

정경욱 기획예산실장은 "세출 예산 요구에 비해 가용 재원이 부족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며 "추후 증액된 예비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비 매칭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예비비를 활용해 복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의회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담양군의회 심의를 거쳐 9월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담양=정승규 기자



"걸어서 군민 속으로"...고흥군수 밀착 소통 행보

현장 목소리 청취...군민 중심 행정 강화

고흥군은 군민과 더 가까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영민 군수가 출근길 '걸어서 군민 속으로' 밀착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출근길 '걸어서 군민 속으로'는 출근길에 군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군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도양읍에서 진행된 출근길 소통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읍민의 생활 속 이야기를 청취하고,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

한 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소통과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

출근길에서 군수를 만난 한 주민은 "이른 아침 출근길에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자 도량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출근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은 일회성이 아니라,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심으로 함께하는 군수가 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군정에 반영하는 삶이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현진 기자

곡성미래교육재단, 교육포럼 정담회 참가자 모집

27일까지...현안 논의

곡성미래교육재단은 17일 "9월 개최하는 '2025년 곡성교육포럼·찾아가는 권역별 정담회' 참가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곡성교육포럼은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모여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자리다.

2025년 포럼의 주제는 '곡성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읍·면에서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 탐색'이다. 읍·면별로 8명씩 원탁에 모여

각자의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천을 약속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권역별로 1회씩 총 3회 개최된다. 일정은 ▲9월4일(곡성읍·오곡면·삼기면·고달면) ▲9월18일(옥곡면·임면·검면·오산면) ▲9월25일(석곡면·목사동면·죽곡면)이며, 각 권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기한 내에 네이버폼(<http://naver.me/xoQLYywx>)으로 신청하면 된다. /곡성=김영철 기자

장성군, '청림 토크 콘서트' 개최

연극·음악 공연 등 호응

장성군이 청림한 공직사회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극·음악 공연, '참여 이벤트' 등이 어우러진 '청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사진>

시작은 '군수와 함께하는 청림 토크'가 열렸다. 무대 정면 스크린의 정보무늬(QR코드)를 객석의 공직자들이 휴대전화카메라로 비추면 질문을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창이 열렸다.

공직자들이 전송한 질문은 바로 스크린에 표출됐는데, 이를 김한중 군수가 즉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진 '부패방지교육' 시간에는 한유나 전



문장사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다.

'청림 연극' 순서에서 이효용, 신정만 배우가 '갑질'을 소재로 유쾌한 상황극을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행사의 대미는 '리베로 밴드'가 장식했다. 귀에 익숙한 노래들을 함께 부르며 청림 실천의 각오를 다졌다. /장성=김태 기자